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안상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로 각각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1인당 수산물 최대 2만원, 농축산물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해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부안상설시장 1층 환급행사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오창휴게소

농특산물 특별판매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지역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연다.

이번 특판은 금·토·일 각 2차례씩(6~8일, 13~15일) 진행되며 귀성객들에게 설 선물로 제격인 고창 풍천장어와 꿀고구마를 선보이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문 기업인 (주)범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수도권과 백화점 등에 집중됐던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망을 중부고속도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신선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판매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읍·면·동장과 주요 현안 논의

정읍시장, 올해 첫 읍·면·동장 소통회의 개최... "시민 체감 행정 실현" 당부

정읍시는 6일 2026년 첫 '읍·면·동장 소통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설 명절 대책 등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학수 시장 주재로, 부시장을 비롯해 23개 읍·면·동장, 시청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읍·면·동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역 내 훈훈한 미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읍·면·동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신청 서류와 홍보 △설 명절 대비 소외계층 위문 및 지원 강화 △한파와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주민 숙원 사업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복지·안전·환경 분야를 중심



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시민 불편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 △주민숙원사업 신속 추진 △겨울철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설 명절 대비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학수 정읍은 "읍·면·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이자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탁월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

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읍·면·동장 소통 회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시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MZ세대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

이학수 시장, 관내 카페에서 신규 직원과 친숙한 대화

정읍시가 지난 5일 이학수 시장과 신규 임용된 공무원 14명이 함께하는 '신규직원 현장 소통 간담회(브런치 토크)'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던 소통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연속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관내 카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갖 공직 사회에 입문한 신규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신규 직원들은 브런치를 함께 즐기며 근무 소감과 조직 생활에 대한 진솔한 생각들을 공유했다. 특히 직원들은 평소 시장에 공급했던 점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세대와 직급을 넘나드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 직원들의 꾸밈없고 솔직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조직 구성원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조직 운영과 직원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설 명절 맞아, 대형 마트 등 유통매장 중심으로 9~13일 실시

부안군은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

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기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구매 증가 시기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왕솔밭 공동체정원 텃밭 분양... 9일부터 접수

정읍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공동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왕솔밭 공동체 정원' 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분양 규모는 총 73개소로 일반 시민 대상 61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배려 텃밭' 12개소로 나누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주소지 관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텃밭을 분

양받은 사람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컴퓨터 진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25일 시 누리집 공고와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연간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1개소당 면적은 8㎡(약 2.4평)이며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자율적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실내 게이트볼장 개관식·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진행

부안군 위도면은 지난 5일 위도면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위도면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도면 게이트볼장 개관식과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고향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전막마을 일동,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하진건설 함선화 대표가 각 100만원을 농농인 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발금마을 조상현 이장,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지앤지 조영산 대표가 각 100만원을, 위도 출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관이 5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더했다.

이어 김용철 위도면장은 "살기 좋고 매력 넘치는 위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 면정 주요 성과와 특색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으며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의 2026년 부안군정 성과보고가 이어졌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미래, 흔들림 없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 가능한 부안을 위한 3대 희망비전을 제시하며 부안의 미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희망소통대화를 통해 군정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마을 경로당 11개소를 찾아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경로당 방문 현장행정을 끝으로 위도면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